

에쿠니 가오리 『반짝반짝 빛나는』의 이야기 장치*

김정미**
jumi03@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기 | 3.2 결혼의 장치 |
| 2. 선행연구 검토 | 3.3 정서장애의 장치 |
| 3. 비밀상성의 장치 | 4. 나오기 |
| 3.1 성정체성의 장치 | |

主題語: 에쿠니 가오리(Ekuni kaori), 반짝반짝 빛나는(kirakirahikaru), 동성애(homosexual love), 이성애(heterosexual love), 정서불안(emotional instability)

1. 들어가기

에쿠니 가오리(江國香織)의 『반짝반짝 빛나는(きらきらひかる)』는 1990년 1월에서 12월까지 『루루부(るるぶ)』잡지에 연재된 장편소설로 1991년 신초샤(新潮社)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후, 2005년까지 제35쇄가 발행된 초베스트셀러이다. 또한 그녀는 이 작품으로 1992년 제2회 무라사키시키키부 문학상(紫式部文學賞)을 수상하였고, 이어 영화로도 제작되어 일본을 넘어 한국에서도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 작가이다. 그녀의 수상작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7년 『草之丞の話』はないちもんめ小さな童話賞大賞

1989년 『409ラドクリフ』第1回 フェミナ賞

1991년 『こうばしい日々』第38回 産経児童出版文化賞

1991년 『こうばしい日々』第7回 坪田譲治文学賞

* 이 논문은 2012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함

** 세명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1992年 『きらきらひかる』第2回 紫式部文学賞

1999年 『ぼくの小鳥ちゃん』第21回 路傍の石文学賞

2002年 『泳ぐのに、安全でも適切でもありません』第15回 山本周五郎賞

2004年 『号泣する準備はできていた』第130回 直木賞

2007年 『がらくた』第14回 島清恋愛文学賞

2010年 『真昼なのに昏い部屋』第5回 中央公論文芸賞

2012年 「犬とハモニカ」(『新潮』2011年6月号)第38回 川端康成文学賞¹⁾

또한 이 외에도 중학교 국어교과서 『현대국어(現代の國語)』에는 『바람의 색(風の色)』이 수록되어 있고,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국어편람에는 에쿠니를 일본의 대표여성작가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에쿠니 가오리는 소설 뿐 아니라, 수필, 동화, 그림책 등 다양한 장르를 발표하였는데 독특한 소재와 개성 있는 문체로 요시모토 바나나, 야마다 에이미와 함께 현재 주목받고 있는 여류작가이다.

에쿠니를 포함한 현대 일본 여류문학작품의 기저에는 전근대적인 남성위주의 지배구조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인식의 전환이라는 변화양상이 여실히 투영되어 있다. 특히 전후(戰後)에는 인간존재에 대한 실존 의식을 추구하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일상생활과 연관된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와 가정의 속박에 대항하는 여성 의식의 내면적인 인간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은 여성이 보다 인간적이기 위한 표징으로 생각되며, 전후 여류문학은 이러한 의미에서 질적 양적으로 그 범주와 깊이를 더해 갔다²⁾고 최연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문학의 기류 속에서 특히 『반짝반짝 빛나는』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에 따른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작품 전면에 배치하여 결혼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성적(性的) 소수자의 삶을 표면에 끌어내어 조명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녀 주인공은 이 사회 다수자의 일상적인 틀에서의 삶이 아닌, 남자는 동성애자, 여자는 알코올 의존성의 정서 불안증상을 가진 소수자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소수자의 결합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비밀상성 설정장치에는 작가의 젠더³⁾의식이 표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남녀 주인공을 둘러싼 비밀상성의 장치, 특히 남자 주인공의 성정체성과 결혼,

1) <http://ja.wikipedia.org/wiki>

2) 최연(1997) 「일본현대소설에서의 여성 의식 -하야시 후미코의 『放浪記』 『晚菊』 『浮雲』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35집, p.193

3)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성별 혹은 성차(性差)를 일컫는 의미로서, 단순히 생물학 성별 구분의 의미인 섹스(sex)와 구별된다.

여자 주인공의 정서장애 등의 설정장치에 대해 분석한다. 작품의 인물설정에 있어서 주인공의 라이프스타일은 이야기 구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작품에 묘사된 인물이 각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타인과 어떠한 관계형성도를 이루고 있는가는 작품의 전달 메시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주인공들의 비밀상성 관계 장치를 통해 현대인이 갖는 소외와 애환,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物語) 장치가 작품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심층 분석하여 작품 감상의 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에쿠니 가오리(江國香織)의 『반짝반짝 빛나는(きらきらひかる)』에 관한 일본측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라세 시로(村瀬士朗)⁴⁾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 소설은 「애인/처」 「연애/결혼」 「인공/자연」 「동성애/이성애」 등 다양한 대립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를 이항대립적으로 장치함으로서 구성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논한다. 그리고 쇼코(笑子)·무츠키(睦月)+곤(紺-게이)의 묘한 삼각관계도 쇼코와 무츠키를 절대적 거리에 떨어뜨려 놓은 「타자」로서의 관념을 그린 「연애소설」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 연애소설은 「타자」(방해가 되는 이성)를 배척하고, 자기 완결적인 안정을 꾀한 기존의 「연애소설」의 패러다임을 역조명한 효과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음은 요시다 모리오(吉田司雄)⁵⁾의 연구를 살펴보자. 요시다는 특히 쇼코의 「정서불안」에 대한 사안을 논하면서 쇼코가 무츠키와 결혼을 결심한 동기는 정서불안정이라는 약점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아픈 연애의 상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여성을 사랑하지 않는 무츠키와 결혼하면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 소설은 호모소설한 힘에 의해 지배받는 남성 위주의 기만을 폭로한 지극히 기본적인 연애소설이며, 에쿠니는 젠더의 관점에서 남성 중심 사회의 왜곡과 억압된 모습을 쇼코라는 여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다음은 야자와 미사키(矢沢美佐紀)⁶⁾의 주장이다. 앞에서 언급한 무라세와 요시다가 무츠키

4) 村瀬士朗(2001)「三角関係(+レズ/+ゲイ)-一川端康成『美しさと哀しみと』(小説) 江国香織『きらきらひかる』(小説)」(境界を越えて-恋愛のキーワード集)『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学燈社, pp.101-103

5) 吉田司雄(2001)「江国香織から遠く離れて」『工学院大学共通課程研究論叢』第39-1号, pp.1-18

6) 矢沢美佐紀(2006)「きらきらひかる江国香織(偽装結婚)という共同体」『ジェンダーで読む愛・性・家族』1月 東京堂出版 pp.174-185

와 쇼코의 관계를 「연애」틀에 놓고 논한 것에 비해, 야자와는 정서불안정성 알코올 의존증상을 앓는 쇼코, 동성애자 무츠키 두 사람이 서로의 질환에 대해 합의한 후에 단행한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협력자로 내세운 일종의 「위장결혼」이라고 논하고 있다. 또 쇼코의 「다림질」은 무츠키의 요소인 청결함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그에게 뭔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서로 함으로서 두 사람 간의 거리를 좁히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은 구보 쇼코(久保翔子)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쇼코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병명이 없는 병」으로 쇼코 자신이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술을 자주 마시는 독특한 성격을 병이라고 여기게 되었는데, 이 질환은 작품 속에서만 작용하며, 쇼코를 짓누름과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된 무츠키와 만나게 하는 효과적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쇼코의 「연애불능」상태는 무츠키와 생활하고 그를 사랑함으로서 회복되는데 결국 무츠키는 쇼코에게 있어 치유를 가져다주는 「구세주」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구보는 남녀주인공이 서로에게 정서적 치유와 관계회복이라는 상호작용 역할에 중점을 두고 논하고 있다.

다음 기쿠치 치에(菊地千恵)⁸⁾는 「현실의 본질적인 고독과 결핍 그리고 소수자를 보는 따뜻한 시선이 작품에 녹아들어 있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마루야마 준(丸山 俊)⁹⁾은 「세 사람이 준(準) 동거 생활을 개시하지만 결말은 오히려 세 사람의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고 세 사람의 동거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또 사이토 미나코(斎藤美奈子)¹⁰⁾는 본 작품이 「소녀소설적인 장치」를 가진 소설로 규정하였으며, 이마에 쇼치(今江祥智)¹¹⁾는 소설후기에서 「심플한 연애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 측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동성애 장치를 비롯하여 부부관계의 장치에 대해서는 「연애」 혹은 「위장결혼」등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반짝반짝 빛나는』작품 요소가 갖는 의미와 캐릭터의 성향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었지만,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설정과 장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일상의 소재가 소설의 구성장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되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7) 久保翔子(2009)『江国香織『きらきらひかる』から見る夫婦と恋愛』『長野国文 第17』長野県短期大学国語国文学会, pp.63-80

8) 菊地千恵(2003)『江国香織の考察』『日本文学ノート 第38号』宮城学院女子大学日本文学会, p.16

9) 丸山 俊(2001)『江国香織』『現代女性作家研究事典』(川村湊・原善編) 鼎書房, p.9

10) 斎藤美奈子(2001)『少女小説の使用法』『文学界』Vol.55, 文芸春秋, p.113

11) 今江祥智, 江国香織(1991)『きらきらひかる』新潮社 解説, p.209

3. 비밀상성의 장치

3.1 성(性)정체성의 장치

현대사회의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 양상은 당연히 개인의 자아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생물학적 성(性)의 구분에서 더 나아가 성역할에 있어서도 이성애(異性愛)가 일상적이며 정상적 성향이라는 사회적 인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생겼다.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중매체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소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도 지금까지의 다소 부정적이며 일방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적(性的) 취향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조금 씩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조짐은 사회전반에서 동성애를 금기시 하던 분위기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그들도 인권적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성애의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들은 여전히 양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수많은 문학예술 작품에서도 그들의 삶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플로랑스 타마뉴는 동성애를 다룬 예술작품에서 단죄의 대상은 동성애 욕망 자체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무시하고 서라도 동성애를 인정받고자 하는 주관성 혹은 자아의 문제¹²⁾로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남성성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소수인종과 같은 다른 소외집단들과 궤를 같이하여 기존의 남성 집단에 대한 대항의 의미¹³⁾ 이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성애를 다룬 작품의 근저에는 제도적 결혼, 가부장 중심의 가족구성 등 기존의 개념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측면이 인정된다.

『반짝반짝 빛나는』에도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장치가 설정되어 있다. 주인공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구보 는 이 소설의 새로운 측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헤테로(이성애자-필자 주)의 결혼생활에 있어 「불륜」은 로맨틱 러브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의 결과이지만, 『반짝반짝 빛나는』의 무즈키와 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로맨틱 러브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다.¹⁴⁾

12) 플로랑스 타마뉴 저, 이상빈 역(2007)『동성애의 역사』이마고, p.50

13) 플로랑스 타마뉴 저, 이상빈 역, 전게서, p.168

14) 久保翔子, 전게서, p.75

즉 구보가 주장하는 이 소설의 구조적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던 고정적 관념의 결혼과 불륜의 개념이 모호해졌음을 지적한 것으로, 동성애와 이성애를 대극(對極)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비밀상의 삶을 선택한 인물의 의식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성애」적 관계결합이 「결혼」이라는 제도속에서 어떠한 단절과 회피의 양상으로 표출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초래된 지극히 개인적 선택이 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점도 상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무츠키는 내과의사이고 동성애자이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이나 자부심을 가진 소유자는 아니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의사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곤이라는 동성애인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연인관계가 될 수 있었는지 무츠키는 쇼코에게 자신들의 러브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다.

(1-a) 그 무렵 곤은 고등학생이었고 나는 막 대학원에 들어갔었어, 라고 무츠키는 말을 시작했다. 하기가 그때까지도 우리는 집도 서로 가깝고 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지만 뭐, 형제나 다름없었지. (생략)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해 달라는 거야. (생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나 그림은 완성되었는데, 일부러 내 방까지 와서 그렸으니까 틀림없이 무슨 특별한 그림일 거라고 어쨌면 나의 초상화를 그렸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그냥 밤하늘을 그린 그림이잖아. 어둠 속에 수많은 별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냥 그런 그림이었어. 그 그림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더군. 쇼코가 알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그림이 고통스러운 러브 레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으니까 말이지. 그림속의 밤하늘은 정말 깊고 맑고 조용했었어. 그리고 그 밤이 시작이었지. p.185¹⁵⁾

이처럼 무츠키와 곤의 러브스토리는 보통의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한 동네에 사는 형과 동생에서 연인사이가 되기까지 고뇌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밤하늘 별 그림처럼 서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별 그림을 건네는 이 장면은 『냉정과 열정 사이』의 공동작가인 쓰지 히토나리(辻仁成)의 얘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b) 츠지씨는 하나의 단면으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연민은 광활한 우주에 별이 탄생하는 순간과 같은 격렬한 스파크인 반면에, 사랑은 태양의 코로나처럼 영원을 테두리 한 결코 끊이지 않는

15) 에쿠니 가오리 원작, 김난주(2001)역『반짝반짝 빛나는』소담출판사, 이하 본문의 인용은 본서에 의하며 아라비아 숫자는 쪽수를 나타냄.

존귀한 불꽃과 같은 것」 그렇습니다. 나는 츠지씨의 이런 문장력을 경애합니다.¹⁶⁾

이처럼 무츠키와 곤에게 있어 별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깊은 것으로, 별 그림은 「별을 바라보는 무츠키를 응시하는 역할을 담당」¹⁷⁾하고 있다. 별이 가득히 그려진 그림은 현실적 감각에서 보면 너무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무츠키에게 곤의 애잔하고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랑고백이었다. 결국 이 러브레터 사건 이후 무츠키와 곤은 다수자에서 소수자로 삶이 뒤바뀌게 된다. 그 이후 무츠키는 쇼코와의 결혼생활을 영위할 때도 자주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본다. 무츠키와 곤에게 있어 별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분신과 흡사하게 보였을 지도 모른다. 그들의 사랑은 물체를 몇 백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망원경」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망원경」의 의미에 대해 무라세는 「절대적 거리에 떨어져있는 <타자>를 <지금·여기>에서 느끼려 하는 「연애」라는 욕망의 비유」¹⁸⁾라고 논하고 있다. 무츠키와 곤은 정서적 육체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두 사람은 소수자로 존재한다. 또 별은 아침 해가 뜨면 숨어버리는 것처럼 적어도 두 사람은 다수자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두 사람의 처지를 잘 아는 쇼코에게 있어 별은 그저 「회고, 거짓말 같고, 가냘픈 p.98」 것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다. 그런데 무츠키가 자신들의 러브스토리를 쇼코에게 들려 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쇼코가 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 이유도 있지만, 무츠키 자신이 아마도 곤에 대한 애정을 재확인하고 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강렬한 바람에 기인한 것은 아닐까? 결국 이 별 에피소드는 「세상과의 알력에 괴로워하는 부부에게 곤과의 공생이라는 해답을 제시한 중요한 장면」¹⁹⁾으로 장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츠키와 곤은 자신들이 동성애자가 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별 그림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대단히 서정적이며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다른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은 다소 냉소적이다. 예를 들면 무츠키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동성애자인 의사 카카이에 대해 곤은 「짜구려 삼류 소설 호모」라고 폄하한다. 무츠키도 카카이가 호모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 집이 산부인과라서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몸을 두려워한데다가, 그 공포감에 자기의 용모에 대한 극단적인 콤플렉스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니, 너무나 진부하다면서 말이야. (생략) 게다가 고등학교 시절 담임선생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흔히 있는 얘기지 뭐. p.54」라고 냉소적으

16) 江国香織·辻仁成(2001)『恋するために生まれた』幻冬舎, pp.20-21

17) 久保翔子, 전계서, p.70

18) 村瀬士朗, 전계서, p.103

19) 久保翔子, 전계서, p.71

로 얘기하고 있다. 게다가 카카이의 애인이 나르시스형 미소년인 것과 비교하여 「곤의 등뼈는 똑바르고, 콜라 냄새가 나. (생략) 일 년 내내 햇볕에 타 있고, 허리가 가늘고, 허리에서도 콜라 냄새가 나.」p.51 라고 쇼코에게 곤의 성적매력에 관해서도 자랑한다. 곤에게 다른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함이 있다고 무츠키는 자부한다. 쇼코는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 자신이 비집고 들어 갈 틈이 조금도 없음을 알아차리며 「어둠에 별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림, 이란 말이지. 무츠키의 인생에서 나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곤을 따라 잡을 수 없다. p.186」라고 절망한다. 그러면서도 왜 쇼코는 무츠키에게 곤의 얘기를 자꾸 들려달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과 결혼 이후 무츠키의 감정에 혹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혹 심정적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변화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곤에 대한 무츠키의 감정은 변화조짐을 보이지 않고, 쇼코는 그런 자신의 기대감을 무츠키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정서불안 악화에 더욱 영향을 끼쳤을 지도 모른다. 어쩌면 쇼코에게 있어서 무츠키는 곤과 무츠키가 애인관계가 되기 이전의 상황처럼 수 십 광년 떨어져 있는 별 만큼이나 멀고 먼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무츠키는 곤과 쇼코의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과 태도로 일관하면서 양쪽 모두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간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주위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적 다수자들과도 의사로서 원만한 관계형성을 맺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선을 보고 자의적으로 이성애자인 쇼코와 합의 결혼을 감행한 것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결혼」이라는 논란을 넘어,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이성애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결혼이라는 점에서 이제 조금씩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려는 독자에게 다소 의외의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결혼」은 우선 어느 한쪽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포기하거나 또는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부부는 상대의 성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변화를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각자의 성정체성을 유지한 채 가정을 이루게 된다. 물론 양가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 사항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결혼생활은 무츠키의 성정체성이 주변 인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더구나 그에게 동성애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결혼생활은 위기에 처한다. 즉 성정체성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위기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 당사자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결혼생활의 지속여부는 주위의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이 제도권 속에 포함된 경우, 성정체성은 개인의 취향 여부를 넘어 사회적 구조와 연관성이 깊다. 사실 무츠키는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결혼생활에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냉엄한 성찰이나 고뇌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각자의 성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부부의 필수적인 성관계는 각자 자유롭게 섹스 파트너를 가져도 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결혼은 결국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을 수 없고, 출산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는 속수무책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성적 취향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족 형태를 모색한다. 즉 쇼코·무츠키·곤 세 사람이 결합 형태의 부부로 살아가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곤은 사실 쇼코 보다도 더 일찍 무츠키와 정서적 육체적 동질성을 공유한 관계이다. 그러나 곤은 자신의 애인이 이성애자와 결혼을 단행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애인의 부인파도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다. 곤은 무츠키가 자신이 아닌 이성애자와 결혼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 배반감과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거나,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하라고 종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연적(戀敵)이라 할 수 있는 쇼코와 꾸준히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갈 뿐 아니라 두 사람만의 독특한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이 작품의 비밀상성의 장치가 돋보인다. 즉 에쿠니가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이 이 소설의 비밀상성 장치가 아니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합의결혼, 그리고 세 사람의 친밀한 유대감이라는 비밀상성을 다루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한다. 결국 사회적 통념의 ‘결혼’ 제도가 무츠키 쇼코 그리고 곤 이 세 사람 모두에게 독특한 관계형성의 주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고, 주변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세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결속시키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있다.

3.2 결혼의 장치

과거의 결혼은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의 획득, 종족보존 등 실용적인 필요성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도덕률이나 사회규범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결혼은 부부의 의식수준, 애정, 자아성장, 개인의 정서적 만족감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 구성단위가 「친족」에서 「개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즉 현대 사회에서 개인성(Individuality)이 강조됨에 따라 각 개인의 주관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반짝반짝 빛나는』의 무츠키와 쇼코의 결혼은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애인을 만들 자유가 있는 부부다. 결혼할 때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p.37」라는 문맥이 보인다.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애인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을 한다. 물론 이 결혼의 실상을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다. 외형은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그대로 고수하며, 부부로서 성관계도 갖지 않으며, 애인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등 결혼의 보편적인 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결국 이 결혼은 사회적 규범이 갖는 보편적인 논리보다는 개인성이 우선시되는 오늘날의 사회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에쿠니는 「남성중심주의를 공공연하게 유지해 온 일본사회가 그 비판적 분석과 해체를 위해 호모소셜이라는 말을 이면에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동시대의 공기를 여지없이 호흡하면서 계속 써 갔고, 그리고 같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 독자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온 표현자의 한 사람」²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쿠니는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나 미화를 경계한다. 그녀는 동성애자 남자, 그리고 동성애자 남편을 가진 사회적 관계성이 대단히 서툰 여성 주인공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단면을 제시했을 뿐, 그것에 대한 공감 혹은 반감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일찍이 인간은 오랜 세월동안 남녀의 결합으로 형성된 가족을 단위로 하여 생산과 종족보존의 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가족사회학의 가족이란 정의도 「주로 친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친족은 일반적으로 혈연(양자를 포함)과 혼인에 의해 형성되는 어떤 범위의 인간관계 또는 집단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행하고 있는 복수의 사람들의 사회적 결합」²¹⁾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대의 결혼이란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당사자인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필요조건으로 성립되지만, 그들이 이루는 가정은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가부장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에 협력, 사회 전체의 이런 거대한 시스템화를 통해 자본은 가정을 통해 공적인 영역의 생산과 사적인 영역의 재생산까지 모두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가장인 남성들이 편승하여 나름의 권리를 누려왔으며 남성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성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을 지배해 왔다²²⁾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서구사회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친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최소의 단위라 할 수 있는 핵가족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핵가족의 구성단위도 개인단위의 가족관계 설정이 일반화되면서 점차 그 의미가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일례로서 일본가족사회학회 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준비를 개시하고 있는 전국가족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세대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하고, 개인을 단위로 하는 가족 관계에 따른 질문항목을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²³⁾ 이러한 측면에서

20) 吉田司雄, 전거서, pp.106-107

21) 박동석(2005)「현대 일본 가족연구의 동향에 대한 재검토」『일본어문학』제29집, p.576

22) 이성희(1996)「미혼 남녀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개념의 성(性) 차이」『한국가족관계 학회지』창간호, p.13

불 때 과거의 결혼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의 획득, 종족보전 등 실용적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도덕률과 사회규범을 강조했다면, 금일의 결혼은 배우자간의 동료감, 애정, 자아성장, 개인의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²⁴⁾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가족유형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진숙은 이것을 포스트 모던 가족유형이라고 칭하며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점차 심화되는 근대화의 -특히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화-결과로 말미암아 개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불안정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의 안정성 또한 흔들리게 되었다. 즉 가족적 연결망이 지나는 구속력은 감소하고 가족외의 다른 생활 형태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차츰 증가하여, 가족에 대해 연구하는 여러 사회학자들은 구가족 모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시민적, 혹은 전통적 가족유형)이 이제는 그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²⁵⁾

이것은 결혼의 유형 뿐 아니라 그 의미도 변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던시대의 <제도적 결혼>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써 간주되어,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우애적 결혼>으로 변화하면서 남편과 아내 간의 밀접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우애적 결혼의 특성은 애정의 주고받기, 남편과 아내의 평등성,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다.²⁶⁾

한편 작금의 사회는 이러한 경향에서 더 나아가서 <성징이 추구되는 사회(deployment of sexuality)>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간의 협동과 우애에 바탕을 둔 우애적 가족의 원리가 아니라 성징이 중요시 되는데 성징이란 굳이 성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보다는 개인성(individuality)이 강조되는 상태로서 개개인의 삶의 주관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치관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반짝반짝 빛나는』의 무츠키와 쇼코의 결혼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은 결혼에 의해 형성되는 가족의 의미에도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사회적 통념의 지극히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을 선택하지만 결혼이 갖는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결혼 후에도 유지한다는 점, 배우자와 혼전 부부의 성관계를

23) 박동석, 전게서, p.585

24) 이성희, 전게서, p.85

25) 이진숙(1997)『‘포스트모던’사회로의 이행과 핵가족·독일의 결혼과 가족제도 변화를 중심으로』『가족과 문화』한국가족학회, p.94

26) 이성희, 전게서, p.85

27) Foucault.M(1978),The History of Sexuality, Vol.1, N.Y; Pantheon

포기하고 각자 애인을 가져도 좋다는 약속 등의 사고와 행동양식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갖는 보편적 논리보다는 개인성을 더 중시하는 작금의 사회적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관념적 차이를 보인다.

또 이들의 결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남녀의 결합이라는 종래의 보편적 개념과도 다소 상이하다. 쇼코는 자신의 정신적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정서불안(우울증과 조울증의 증상이 같이 나타남) 알코올 의존적 경향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하거나 적극적인 치료와 개선책을 모색하지 않는다. 문제와 정면에 맞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의사의 권유라고는 하지만 자의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적이며 전통적 가족관계 속에 자신을 포함시킨다. 이것은 전시대의 수동적인 여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계형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결혼관계는 동성애자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 수 없다는 쇼코 부모와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한다. 쇼코와 무츠키의 고뇌는 깊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의 선택, 혹은 관계 개선 후 결혼생활 유지 등의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소설의 결말은 쇼코가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서 남편의 동성애인 곧과 3인의 동거로 마무리 된다. 즉 남편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배우자의 애인과 자의적 동거관계를 선택하는 비밀상적 장치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쇼코의 결혼은 결혼의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애정과 신뢰 등 절실한 내적 동기가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한 대상의 선택과 결합이라는 점, 그리고 결혼해 체 위기를 남편 애인과의 공생이라는 비밀상적 선택으로 마무리한다.

그러나 쇼코가 선택한 첫 번째 결혼과 마찬가지로 3인의 두 번째 결혼이 자신의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적 치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원래 결혼이란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 다양한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두 남녀의 정서적 법적관계」²⁸⁾라는 기존의 개념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의 결혼은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가진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주인공 두 사람은 부부관계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성관계 배제를 전제로 한 새로운 부부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심리적 역할모델은 전근대적인 성적(性的) 결합을 기반으로 한 부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결혼과 그들을 지배해 온 과거의 결혼이라는 제도간의 괴리감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상대방을 억압하는 콤플렉스로 작용한다. 즉 부부로서 두 사람의 원활한 소통은 아마도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쇼코에게 있어서

28) 유영주 외 6인(1995)『결혼과 가족』경희대학교 출판국, pp.21-25

무츠키와의 적극적이며 유일한 소통 수단은 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소통은 그들의 생활공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그 공간 밖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사회적 지탄과 비난의 빌미가 된다. 그래서 쇼코는 동일한 공간을 아래층에 또 하나 만들어 자신들만의 소통 창구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강혜진은 이 소설을 남성중심의 사회가 이룩해 온 획일적인 제도와 그에 대한 부적응자인 소외된 약자들을 억압하는 제도로서의 결혼과 젠더 혹은 섹슈얼리티에 의한 제도화된 성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²⁹⁾라고 논하고 있다. 세 사람의 공생이 갖는 결말의 의미도 결국은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들이 이 사회에서 음지의 낙오자로 남지 않고, 동거의 형태를 통해 유대와 상생을 모색하며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킨 것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작품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타자화 된 여성상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주인공 쇼코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부적응자로 살아온 유약하고 모순된 존재지만 결국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과 유대관계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텍스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3 정서장애의 장치

정서불안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쇼코에게 의사는 치료의 일환으로 결혼을 권유하였고, 결혼하면 정서불안 정도의 증상은 금방 호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쇼코에게 결혼은 의사의 말처럼 단순히 자신의 정서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결혼 상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쇼코는 절망감이 아닌 안도감을 느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자 현재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기록한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c) 침실 서랍장 제일 윗 서랍에 비디오의 사용 설명서와 결혼반지 보증서, 아파트 임대 계약서 따위와 함께 두 통의 진단서가 들어있다. (생략) 나의 정신병이 정상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모순된 일본어로 쓰여 진 진단서다. p.15

(2-c) 내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다. p.154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건강진단서와 함께 들어있던 임대계약서처럼 계약의 내용이 변하

29) 강혜진(2008) 「에쿠니가오리의『반짝반짝 빛나는(きらきらひかる)』론 -결혼·섹슈얼리티·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면 언제든지 파국을 맞을 수 있는 소위 계약결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신뢰와 애정에 기초한 곤과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쇼코는 특별한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감행한 결혼이었지만 당초의 심정과는 달리 무츠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감정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조바심 때문에 정서불안의 증세는 갈수록 심해져 간다. 그래서 자신에게 결여된 신뢰와 애정을 보충하기 위한 심정으로 선택한 것이 곤을 끌어드린 세 사람의 공동생활일지도 모른다. 쇼코는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에 대해 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었다. 이같은 쇼코의 정신적 고뇌는 본문에서도 절실하게 묘사되어 있다.

(1-d) 요즘 쇼코는 내내 울(鬱) 상태다. 험악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문 채, 한 군데만 쳐다보고 꼼짝하지 않는다. 유난히 도전적인 말을 내뱉는가 하면, 사소한 일로 눈물을 머금고 애절하게 나를 가만히 쳐다본다. 누구한테든, 정신의 파도랄까 리듬이랄까 그런 기복은 있는 법이고, 다만 쇼코는 그게 남보다 좀 심할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괜한 걱정을 하거나 소란을 떨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왔고, 있는 그대로의 쇼코를 좋아하기도 했다.(생략) 이전의 주치의를 찾아가 기도 하고, 카지베씨한테까지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사태를 호전시켜보려는 쇼코의 마음이 나오서는 무척 안쓰러웠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서 싸우고 있다. pp.91-92

이처럼 쇼코의 정서불안은 날로 심각해져 간다. 주치의는 결혼 이후에도 한층 심각해진 우울 증상에 대해 결혼 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남편 무츠키는 자신도 의사이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쇼코의 혼자만의 투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쇼코는 때로 무츠키를 향해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1-e) “의사 선생님 같은 말투로 나한테 말하지 마.” 적의에 찬 눈길이었다. “나는 무츠키의 환자가 아니야.” 쇼코는 나의 컵을 빼앗아 한 컵 가득 아메리칸 커피를 단숨에 마셨다. (생략) “무츠키는 나를 정신병 환자라 여기고 있는 거지. 아저씨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다니, 내가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했지?” p.100

(2-e)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옆에 있는 물건을 죄다 무츠키에게 던지고 있었다. 홍차 깡통, 찻잎 거르개, 민트병, CD 재킷, 물뿌리개, 문고본, 하나하나 던지면서 나는 흐르는 눈물에 나를 맡겼다. 목구멍에서 껍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p.182

절제하지 못하는 쇼코의 분노와 상실감의 원인은 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 쇼코는 결혼 전 교제했던 하네기와 아픈 이별을 경험했다. 요시다씨는 이것과 관련하여 「소중한

것을 갑자기 앓았다는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서불안정과 알코올 의존의 원인도 그에 의한 것이다」³⁰⁾라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야자와씨는 「하네기와의 이별이 쇼코를 정신적인 병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실연 이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³¹⁾라고 논하며, 구보씨는 쇼코의 정신병은 「<병명이 없는 병>으로 실제로 어떤 병명에 해당하는지를 모색하기 보다는 추상적이 마이너스 이미지의 속성으로서 필요한 것」³²⁾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쇼코 자신은 하네기와의 이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f) 하네기와 헤어진 것은 무츠키와 선을 보기 바로 얼마 전이었다. 하네기는 침울한 표정으로(그 사람은 늘 그런 표정이다. 나는 그의 비애감 어려있는 이마를 좋아했었다) 헤어지자고 말했다.

p.45

(2-f)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p.46

쇼코 자신은 하네기가 결별하지는 얘기를 여전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네기의 애매함이 원인이기 보다는 오히려 타인과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는 쇼코의 성격 탓일 것이다. 쇼코에게는 오직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마저 무츠키의 일로 절교하게 된다. 쇼코는 늘 주변사람과 소통의 문을 닫고 자신만의 공간에 숨어 버린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한편, 사물과의 소통은 빈번해진다.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것도 사람과의 소통부재에서 오는 답답함을 술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결혼 이후 쇼코는 술 뿐 아니라 나무 그림 옷 등과 같은 사물과 소통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1-g) 따분해서 백포도주 병을 들고 와 보라 아저씨 앞에 앉는다. “마셔요, 무츠키는 그냥 내버려 두고.” 아저씨는 신나하는 표정이었다. p.21

(2-g) 집으로 돌아가자, 쇼코는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가 아니다. 벽에 걸어둔 세잔느의 수채화를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곡목은 <그 아이는 누구>였다. 내 아내는 정말이지 좀 유별나다. p.74

(3-g) “보라아저씨에게 노래 불러줬어. 그랬더니 아저씨도 답례로 불러주겠다기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도 안 불러 줘.” 나는 소스라쳐 손끝으로 피가 줄줄 새어나가는 것 같았다. p.98

(4-g) 식후에 쇼코는 홍차를 삼 인분 끓인다. 나와 그녀와 그리고 유카알레판티스페스를 위하여.

30) 吉田司雄, 전게서, p.3

31) 矢沢美佐紀, 전게서, p.184

32) 久保翔子, 전게서, p.72

p.125

(5-g) 쇼코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홍차를 꿀꺽꿀꺽 단숨에 마시고 다른 한 잔의 홍차를 화분에 뿌렸다. “곤의 나무, 설탕 하나하고 림주 작은 스푼 절반 정도 섞은 홍차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p.126

이상과 같이 쇼코는 무츠키를 비롯한 사람과의 관계성은 소원해지는 대신 주변의 사물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무츠키는 순간순간 놀라지만 특별히 그녀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는 사이 쇼코는 점점 더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결국 무츠키조차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녀의 병은 깊어간다. 그런데 단지 곤에 대해서만큼은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 결혼 축하 선물로 곤이 준 유카알레판티스페스에 대해 처음에는 「도전적」 「비웃는 듯한 느낌」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과 연관된 사물에게 노래를 불러준다는지, 홍차를 준다는지 애착과 관심의도가 높아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물 뿐 아니라 실제 곤에 대한 친밀감도 한층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말에 곤과의 동거를 결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심정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 후에도 계속되는 쇼코의 정서적 불안은 다음과 같은 쇼코의 독백에서도 알 수 있다.

나는 그저 무츠키와 함께 둘만의 생활을 지키고 싶을 뿐이다. 잃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야 할 우리도 결혼 생활, 나는 무츠키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언가를 지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p.171

쇼코는 무츠키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의 고조가 곤과 관련된 사물에 더욱 집착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져 무츠키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자 무츠키의 소지품이 쇼코의 관심과 소통의 대상이 된다. 무츠키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요즘 쇼코의 관심은 아무래도 생물에 쏠려 있는 것 같다. p.127」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음 장면은 쇼코가 무츠키를 위해 유일하게 집중하는 가사에 대한 서술이다

(1-h) 나는 시트에 다림질을 하는 쇼코의 뒷모습을 소름이 오싹 끼칠 만큼 좋아한다. 그녀는 아주 열심히 다림질을 한다. 침대가 따뜻해지지만 하면 되는데, 쇼코는 주름 하나 없이 꼭꼭 눌러 다림질을 한다. 침대 꽤 뽕뽕해질 정도다. p.36

(2-h) 시트에 다림질을 하는 것은 겨울 동안의 습관이다. 대답이 없어서 나는 수돗물을 잠그고 다림질은 안 해도 되, 라고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말했다. 역시 대답이 없다. 돌아보니 쇼코는

부엌구석에 서 있었다. p.106

(3-h) 이 권태는 대체 뭘까, 무츠키가 마련해 준 이 완벽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뭘지 종잡을 수 없는 답답함과 불안은 대체 뭘까. 나는 침실로 돌아와 벽장을 열었다. 무츠키의 모습을 떠올리고 무츠키가 틀림없이 살아있는 인간이고 내 남편이란 것을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줄무늬 방 안에서 나는 무츠키의 양복을 침대에 늘어놓았다. 와이셔츠와 청바지 몇 벌, 티셔츠 몇 장과 양말 두 켤레를 늘어놓을 즈음에야 간신히 안심한 나는 샤워를 하고 샐러드를 먹었다. p.139

쇼코는 가사와 관련된 세탁 청소 요리 등 그 어떤 일에도 흥미를 보이거나 주부로서 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무츠키가 요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가사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도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 무츠키조차도 집안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사로 인한 두 사람의 충돌이나 대립은 없다. 그런데 그녀가 유일하게 심혈을 기울여 완벽하게 하려는 일이 바로 다림질이다. 그녀는 다림질에 열의를 보이며 무츠키의 옷을 옷장에서 꺼내 멍하니 바라보거나, 만지작거리며 안심하는 등, 다소 심각한 사물 집착증을 보인다. 쇼코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성적욕망의 억압에 의한 일종의 정서불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쇼코의 불안과 초조의 밑바닥에는 아내로서의 상실감, 냉혹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러나 무츠키를 포함해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은 모순된 감정의 충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심정이 잘 묘사된 장면은 다음과 같다.

(1-i) 무츠키는 뒤에서 껴안듯 나를 꼭 누른다. 그렇게 당하고서야 나는 자신이 몹시 떨고 있음을 알아챘다.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우는 소리만 커진다. 나는 이제 무츠키 없이는 살 수가 없다. p.183

(2-i) 무츠키와 잘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태연하게 부드럽고 자상한 무츠키를 견딜 수 없다. 물을 안는 기분이란 섹스가 없는 허전함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에 대한 콤플렉스라 여기고 신경을 쓰는 답답함이다. p.183

이처럼 쇼코는 무츠키에 대한 집착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감정변화를 자연스런 흐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힘겹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에 대한 집착은 극도의 불안 증상으로 나타난다. 쇼코에게 무츠키는 단순히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넘어 지금까지 소외된 자신을 삶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강한 믿음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무츠키가 곧 없이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녀이기에 결국 최종 선택은 3인의 동거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다분히 우호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특수성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문학작품에서 보아왔던 화합 또는 결별형태와는 사뭇 다른 결말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3인의 동거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려 했을까?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결혼과 불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등 수많은 이항대립적인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양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관계와 형태는 기존과는 다른 궤도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이러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쇼코의 정서불안 장치는 「세 사람의 특별한 동거」라는 의외의 결말을 뒷받침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4. 나오기

에쿠니 가오리의『반짝반짝 빛나는』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합의결혼, 그리고 남편 동성애인과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남녀결합 모델을 제시했다. 또 세 사람의 공생이 갖는 결말의 의미도 결국은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들이 정서적 치유와 관계회복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닌, 그들만의 특별한 동거의 형태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많은 문학작품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타자화 된 굴곡진 여성상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쇼코는 남성중심의 다수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록 부적응자로 살아온 유약하고 모순된 존재지만,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과 유대관계를 도모하려는 인물로 설정되어있다. 또 무츠키와 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가정」두 가지 모두를 획득하는 새로운 모델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동거는 「이성애」「동성애」 모두에게 상실이 아닌 획득의 결합장치라 할 수 있다. 이 결합장치가 애정과 신뢰라는 절실한 내적동기가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선택과 결합이라는 점에서 「비일상성」의 당위성도 갖는다. 결국 본 텍스트의 사회적 통념의 ‘결혼’ 제도의 다양한 변화양상은 남편을 둘러싼 아내와 동성애인과의 결합 형태라는 비일상적 결말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에 대한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參考文獻】

- 강혜진(2008)「에쿠니가오리의『반짝반짝빛나는(きらきらひかる)』론-결혼·섹슈얼리티·관계-」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석(2005)「현대 일본 가족연구의 동향에 대한 재검토」『일본어문학』제29집
- 에쿠니 가오리 원작, 김난주 역(2001)『반짝반짝 빛나는』소담출판사
- 유영주 외6 인(1995)『결혼과 가족』경희대학교 출판국
- 이성희(1996)「미혼 남녀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개념의 성(性)차이」『한국가족관계 학회지』창간호
- 이진숙(1997)「『포스트모던』사회로의 이행과 핵가족·독일의 결혼과 가족제도 변화를 중심으로」『가족과 문화』한국가족학회
- 플로랑스 타마뉴 저, 이상빈 역(2007)『동성애의 역사』이마고
- 최연(1997)「일본현대소설에서의 여성 의식-하야시 후미코의『放浪記』『晚菊』『浮雲』을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제35집
- 江国香織·辻仁成(2001)『恋するために生まれた』幻冬舎
- 国香織(1991)『きらきらひかる』新潮社
- 菊地千恵(2003)「江国香織の考察」『日本文学ノート 第38号』宮城学院女子大学日本文学会
- 久保翔子(2009)「江国香織『きらきらひかる』から見る夫婦と恋愛」『長野国文第17』長野県短期大学国語国文学会
- 斎藤美奈子(2001)「少女小説の使用法」『文学界』Vol.55, 文芸春秋
- 村瀬士朗(2001)「三角関係(+レズ/+ゲイ)-一川端康成『美しさと哀しみと』(小説)江国香織『きらきらひかる』(小説)」(境界を越えて-恋愛のキーワード集)『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2月 学燈社
- 丸山 俊(2001)「江国香織」『現代女性作家研究事典』(川村湊・原善編) 鼎書房
- 矢沢美佐紀(2006)「きらきらひかる江国香織:(偽装結婚)という共同体」『ジェンダーで読む愛・性・家族』1月 東京堂出版
- 吉田司雄(2001)「江国香織から遠く離れて」『工学院大学共通課程研究論叢 第39-1号』2001年11月
- Foucault.M (1978),The Histoy of Sexuality, Vol.1, N.Y; Pantheon
- <http://ja.wikipedia.org/wiki>

논문투고일 : 2013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114년 01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20일

 <要旨>

에쿠니 가오리 『반짝반짝 빛나는』의 이야기 장치

에쿠니 가오리의 『반짝반짝 빛나는』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와의 합의결혼, 그리고 남편의 동성애인과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남녀결합을 제시했다. 기존의 많은 문학작품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타자화 된 굴곡진 여성상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쇼코는 남성중심의 다수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록 부적응자로 살아온 유약하고 모순된 존재지만,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과 유대관계를 도모하려는 인물로 설정되어있다. 또 무즈키와 곤은 자신들의 성적체성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가정」 두 가지 모두를 획득하는 새로운 모델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동거는 「이성애」 「동성애」 모두에게 상실이 아닌 획득의 결합장치라 할 수 있다. 이 결합장치가 애정과 신뢰라는 절실한 내적동기가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선택과 결합이라는 점에서 「비일상성」의 당위성도 갖는다. 결국 본 텍스트의 사회적 통념의 「결혼」 제도의 다양한 변화양상은 남편을 둘러싼 아내와 동성애인과의 결합 형태라는 비일상적 결말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에 대한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The structural elements in the story of 'Kirakirahikaru' by Ekunikaori

By Ekunikaori presents a new type of sex relationship where a wife lives with her husband who has a gay partner.

The value of the symbiotic relationship by these three people is to present a new model of sex relationship in terms that the minorities or the weak in modern society can reveal the value of their own existence through the symbiotic relationship, not left as stragglers in a shady spot. The value of this work is that, though Shoko, the heroine, is a weak and contradictory female like a maladjusted one in a male-dominated society, she contributes independently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socially weak, in contrast to traditional stories where females are described as worthless characters in a male-dominated society.

The varieties of marriage life from traditionally accepted idea and the peculiar relationship among a wife and a husband with a gay partner are main structural devices of this work.